

예산 3조575억...교육격차 해소 중점

광주시교육청

2023년 18% 증가...교육회복 6455억 수요자 중심 미래교육·교육환경 개선

광주시교육청이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4655억원(18.0%) 증가한 3조 575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1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 정부이전수입 2조 530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86억원, 기타이전수입 186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로 39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시교육청은 본예산 편성에서 교육격차 해소, 수요자 중심 미래교육 체제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교육회복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645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292억 원 ▲코로나로 누적된 교육 결손 회복 지원 480억 원 ▲교육외계층 지원과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2380억원 ▲유아교육 강화와 방과후 돌봄 확대 1452억원 ▲학교 현장의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학교운영비로 185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수요중심 AI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광주형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1114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적인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115억원 ▲디지털 AI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기반 조성 842억원 ▲SW·AI 교육확대를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 157억원을 편성했다.

시설환경, 환경위생관리 등 학교환경개선에도 3143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446억원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640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05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1조 7261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변동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에 각각 1300억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억원 등 총 2602억원을 기금에 편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누적된 교육 결손 회복과 교육사각 지대 해소에 중점 투자하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생안전·학교위생 강화 등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본예산안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예산 5조77억원...학교 교육력 강화

전남도교육청

학교지원 2577억·학생교육력 2269억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교육자치 실현

전남교육청이 5조77억원 규모로 2023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 본예산안이 5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입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조3천330억 대비 6747억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은 다음달 15일 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은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학교 교육력 강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조성,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4487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172억원, 자체수입 117억원, 전년도 이월금 910억원 등이다.

학생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하는 학교지원에 2577억원이 편성됐으며 학생교육력 향상 2269억원,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확대 112억원,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3억원, 수업이 가능한 교실 만들기 27억원,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 16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조성에 4611억원이 배정됐다. AI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 지원 25억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186억원,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교육 지원 114억원,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지원 299억원,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학습공간 구축 3601억원, 미래교육 대비 정보화 인프라 구축 386억원 등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학교방역인력 및 물품지원 124억원, 학교노후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3988억원, 급식 및 교과서 등 무상교육지원 1308억원,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복 및 체육복지원 130억원, 등·하교 0원버스 추진 등 통학버스운영 366억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 488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6억원, 학업중단예방 강화 37억원,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 72억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15억원, 지역과 함께하는 직업교육 277억원 등 총 448억원이 편성됐다.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예산안은 주민직선 4기 출범 2년째를 맞아 전남교육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역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 제고와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문예창작과, 웹소설 작가 발굴 프로젝트 주목

장르문학 특성화...플랫폼 연재 등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문예창작과가 추진하는 웹소설 작가 발굴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광주대에 따르면 문예창작과가 웹소설 전문 업체와 협업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플랫폼 연재 계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국내 최초 웹소설 및 장르문학 분야 특성화를 선언한 광주대 문예창작과는 관련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소모임 창작공방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재학생들이 플랫폼 연재와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광주대 LINC3.0 사업단과 연계해 웹콘텐츠 전문기업인 키다리스튜디오 소속 현직 PD를 초청, 재학생들의 창작 작품을 피드백하는 온라인 특강을 실시했다.

웹소설 전문 출판사 봄미디어와 손잡고 신인 작가 발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봄미디어 소속 웹소설 PD들이 평가를 진행해 최종 선정된 학생들에게 국내 웹소설 플랫폼에 연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6명의 학생이 가선정됐으며 웹소설 전문 작가를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기 작가를 배출하는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3억 6천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 '검술명가 막내아들'의 작가 황재평(필명)이 광주대 문예창작과 졸업생이다.

최근 온라인 웹소설 창작 강사로 유명한 브라키오(필명)를 비롯해 '역대급 야구천재가 되었다'의 작가이며 대학 현장에서 웹소설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삼삼춘기(필명) 등 문예창작과 플랫폼에서 인기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재학생들이 공개한 웹소설 'BL 웹드라마의 남주가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수업 모습. <광주대 제공>

되었다'와 '아카데미의 마피아가 되었다' 등도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내년 1월 재학생들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작을 선발해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창작공방-웹소설 출판사 계약-플랫폼 연재'로 이어지는 학과 작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대가 주최한 제1회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에 참여한 김민지(2년)씨는 "학과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웹소설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을 통해 많은 예비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 후배로 만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군사학과 명성...육군 3사관생도 4명 합격

졸업 예정자 36명 중 31명, 육군 장교·특전부사관 등 취업 확정

동강대학교 군사학과가 올해도 전국 최고의 군사학과로 명성을 날렸다.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올 5월부터 진행된 '2023년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입생 선발 시험'에서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장교과정으로 공무원 7급에 해당된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2년도 선발시험에서 학과 창설 이래 가장 많은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특히 호남권역 전문대학 최초의 여학생 생도와 1학년 재학생 예비생도 배출 등의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동강대 군사학과는 내년 졸업 예정자인 2학년 36명 가운데 ▲육군 장교 3명 ▲육군 특전부사관 2명 ▲육군 부사관 26명 등 총 31명이 취업을 확정,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임을

입증했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2011년 개설 후 2014년과 2016년, 2018년, 2020-2021년 육군본부 학사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사학과로 인정받았다. 2019-2021년 3년 연속 육군본부 인재 선발 최우수 군사학과로 선정돼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감사장도 받았다.

동강대는 올해부터 국방부 정책사업인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인 제305학생군사교육단을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오는 21일까지 2023학년도 수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 AI 자동차 전문인재 양성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3곳과 MOU

호남대학교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정영기)이 글로벌 AI 자동차 전문인재 양성에 나섰다.

최근 학교 상상공작소에서 미국 산타클라라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방호열),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박용국), 알라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상공회의소(회장 황옥란) 등 미주지역 상공회의소 3곳과 글로벌 AI 자동차 전문인재 양성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AI자동차 분야 교육과정 운영 협력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AI 자동차 전문가의 학부 교육 참여 및 국제 산학연계 교육 ▲AI 전기자동차 관련 대학 내 스타트업의 미국진출 및 미국 내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협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산타클라라 한인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유명 기업 및 기관, 전문기술인, 창업투자 전문회사 VC 대표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진행해 왔으며 2022 CES 혁신기술 트렌드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